

높이뛰기 결선 우상혁 vs 바심 '2파전'

'현역 빅3' 탬베리 발목·허벅지 통증으로 결선 턱걸이 바심 넘으면 한국 사상 최초로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

세계 육상 남자 높이뛰기 '빅3' 구도가 예상을 치르면서 '2파전'으로 바뀌었다.

한국시간으로 19일 오전 9시 45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리는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은 우상혁(사진·26·국군체육부대)과 무타즈 예사 바심(31·카타르)의 2파전이 될 전망이다.

결선에는 총 13명이 출전한다. 16일 치른 예선에서 2m28을 넘은 11명과 2m25를 1차 시기에 넘은 2명이 결선 진출권을 얻었다.

예선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경기를 마친 우상혁과 바심, 장고 로벳(30·캐나다), 안드리 프로첸코(34·우크라이나) 등 4명은 공동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우상혁의 개인 최고 기록은 실내 2m36, 실외 2m35다.

결선에 출전하는 점퍼 중 우상혁보다 높은 개인 최고 기록을 보유

한 선수는 바심(2m43), 프로첸코(2m40), 탬베리, 주변 해리스(23·미국·2m36) 등 4명이다. 독일의 마테우시 프리시빌코(30)는 우상혁과 같은 2m35의 실외 개인 최고 기록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우상혁에게 긴장감을 주는 라이벌은 현역 최고 점퍼 바심뿐이다. 2017년 런던,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한 바심은 도쿄올림픽에서 꿈에 그리던 올림픽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한국 선수 중 실외 경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20km 경보의 김현섭(2011년 대구·동메달)이 유일하다.

우상혁이 19일 결선에서 1위에 오르면,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선수권 챔피언에 오른다.

이미 그는 올해 3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서 2m34로 우



하며 '한국 최초'의 기록을 썼다. 바심은 베오그라드 세계실내선수권에 출전하지 않았다.

"렛츠 고 우(Let's go woo)"를 외치며 도약하는 우상혁은 '전설의 기록'에도 도전한다.

남자 높이뛰기에서 같은 해에 세계 실외와 실외 세계선수권에서 모두 우승한 선수는 '전설' 소토마요

르(1993년 3월 토론토 세계실내선수권·8월 슈투트가르트 세계선수권 우승)뿐이다.

결선에서는 2m19, 2m24, 2m27, 2m30, 2m33, 2m35를 차례대로 시도하고, 이후 최상위권 수상자를 가릴 높이로 바를 정한다. 외신에서는 2m35, 2m37을 우승권 기록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왕마마 남시오' 16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 드림올스타 대 나눔올스타의 경기. 2회말 드림 올스타 김태군이 타석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단체 남 19·16세 이하부 2위

2022 박카스배 전국 시도학생골프팀 선수권 개인전 16세 양효진 2위·19세부 박정훈 3위

제주도가 2022 박카스배 SBSGOLF 전국 시도학생골프팀 선수권대회에서 종합 5위를 차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골프존 카운티 오라에서 열린 대회에서 남녀 단체 및 개인 합계 48.00으로 경기(65.00), 인천(57.00), 서울(51.50), 부산(49.50)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남자부에선 4점차로 경기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여자부 성적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5위에 만족해야 했다.

단체전인 경우 남 19세이하부(김현욱, 박정훈, 신민수)에서 2위(271타), 남 16세이하부(조강휘, 조건희)에서도 2위(284타)를 차지했다. 또 여 16세이하부(김수빈, 양효진)에서 3위(276타)에 올랐다.

개인전에서 양효진은 여16세이하부에서 2위, 박정훈은 남 19세이하부에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골프협회 선수등록규정에 의해 2022년 선수



등록을 한 시·도협회에서 선발된 국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166명이 참가했다.

경기 방식은 16세이하부와 19세이하부로 나뉘어 1일 18홀씩 2일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체전 16세이하부는 팀당 2명으로 구성하고 매일 2명의 타수를 합산해 경기 후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

19세이하부는 팀당 3명으로 구성하고 매일 3명 중 적은 타수를 친 2명의 타수를 합산해 경기 후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팀에게 우승이 돌아간다.

제주, 베테랑 GK 김근배 영입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는 K리그2 소속 김포FC에서 베테랑 골키퍼 김근배(36)를 6개월 임대 영입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김근배는 고려대 재학시절 전국대학축구대회 4연패와 함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대학축구대회 GK상을 3연속 수상했던 대형 골키퍼 유망주였다. 2009년 강원FC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김근배는 상주 상무, 성남 FC, 대전하나시티즌을 거치고 올해 김포FC에 합류했다. K리그 통산 136경기(200실점)에 출전했다.

제주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김근배를 영입하며 골문의 무게감을 더했다. 국가대표 골키퍼 김동준과 유연수, 임준섭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문경건이 군입대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다.

제주, 홈 개막전 패배 설욕 "다음에"

K리그1 2022 22R 제주 vs 포항 1-1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포항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홈 개막전 패배를 설욕하는데 실패했다.

제주는 16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2 22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한중무(사진)의 프로 데뷔골이 터졌지만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제주는 이로써 올 시즌 홈 개막전 0-3 완패에 이어 또다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도장깨기를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3. 4위권 승점 6점짜리 승부로 관심을 끈 이날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상승세의 홈 팀 포항은 선두권과의 간극을



좁히고 더불어 바짝 추격하고 있는 제주를 밀어내기 위해, 제주는 선두권 추격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기 때

문이다. 때문에 0-0의 팽팽한 균형은 쉽사리 깨지지 않았다.

원정 팀 제주가 먼저 골 소식을 전했다. 후반 2분 포항 수비수가 볼을 건어냈는데 주민규의 몸에 맞고 주민규의 발에 걸린 것이다. 주민규는 침착하게 중앙에 있는 한중무에게 볼을 내줬고, 한중무는 가볍게 원발로 데뷔골을 마무리했다.

승부는 후반 32분 포항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원정으로 돌아갔다. 제주의 최영준이 포항의 크로스를 차단했는데 차단한 볼은 포항의 정재희 발 앞으로 떨어졌다. 정재희는 한 박자 빠르게 솟으며 연결해 제주의 왼쪽 골문을 열어 제쳤다.

제주는 이후 이지솔과 변경준을 연이어 교체 투입하며 승리를 향한 마지막 불꽃을 피웠으나 소득은 없었다. 그렇게 경기는 1-1로 막을 내렸다. [조상윤기자 svcho@halla.com](mailto:svcho@halla.com)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뉴스 8:25 아침미담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TV소 토크영광(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볼만한 아침 M&W 1부 8:10 해 볼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오라차차 내 인생(재) 10:00 인강뉴스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미남담(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테이밍행 길 스페셜 8:50 비밀의 집(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맛에 산다 11:15 헬로키즈 체육교실 11:45 똑똑구조대 2(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아침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25 쿠라기 탐구생활 10:55 오리조리 맛있는 수업 11:25 2022 세계육상선수권 여자 100m 결승	7:45 띠띠뽀 띠띠뽀 8:00 뽀뽀뽀 유지원 9:20 꼬마버스 타요 9:40 우리집 유지원 10:10 한국의 놀레길 13:50 EBS 다크프라임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7:45 출렁! 슈퍼왕 18:00 생방송 뽀뽀 해결단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네트워킹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10 보물섬(재) 15:00 콘텐츠 인테너(재) 15:50 고품질 이수다 16:00 사시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미남담(재) 13:30 테이밍행 길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갤럭시 키즈(재) 15:30 TV 유지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크(재) 16:50 연중 라이브(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도파자라 휘날리며 스페셜 13:50 2시 뉴스 워진 15:20 뽀뽀뽀 좋아좋아 15:55 기분 좋은 날 16:55 5 MBC 뉴스 17: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결혼지옥	12:10 SBS 12 뉴스 12:50 동상이몽 나는 내 운명(재) 14:00 최강 1교시(재) 15:00 내모임 16:00 좋은아침 스페셜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00 KCTV 뉴스 8:00 제주 ING 9:30 KCTV 다크스페셜 11:30 숲·휴 12:00 할랑래, 이어도사나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5:20 민요 어벤저스 17:00 KCTV 뉴스 18:30 할랑래, 이어도사나 20:50 숲·휴 21:00 KCTV 종합뉴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집 거꾸리 20:30 오라차차 내 인생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황금가면 20:30 오라차차 리틀이 되나? 21:50 미남담 23:00 가는 출렁하다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비밀의 집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안싸우면 다행이야 22: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00 동상이몽 나는 내 운명 23:40 집시 무비월드	7:00 김박기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창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낚총합뉴스 14:05 송정미의 속속송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승부
제주 CBS FM 95.3MHz 90.9MHz TBN제주교토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2:00 TBN 처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20:00 탐나는 가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토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8일

36년 음주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48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자제하며 사생활을 논하지 마라. 60년 타이밍이 맞으면 호재, 신중함이 필요. 투자도 타이밍이 있다. 72년 부모나 처의 도움이 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투자하라. 84년 좋은 만남 또는 소개가 있다. 기쁨으로 좌우되는 것은 금물.

37년 오늘을 유쾌하게 보내려 노력하라. 49년 늦게 귀가하면 불리. 가정에 불화가 온다. 61년 언변, 말로 하는 직업은 인정받고 수익 증대. 73년 주변정리 또는 정돈이 일을 향상 시킨다. 사업장 주변을 깨끗이 하라. 85년 불투명한 오늘보다 계획있는 미래설계 필요하다.

38년 두통이나 신경성 질환이 온다. 재물과 관계된 일이 발생한다. 50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베풀수 있는 기회가 온다. 62년 일이 앞에 산적해 있다면 미루지 말라. 74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는 듯하나 방해자가 생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경계하라. 86년 평생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준비할 것.

39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히려 인정하니 주의하면 해소된다. 51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길. 63년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익이 생긴다. 계약건은 시간 활용이 중요하다. 75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내일에 전념하라. 87년 전문직은 이익이 따르고 직장인도 인정받는다.

40년 아랫사람의 도움이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52년 거래나 계약관계로 몸이 분주하고 소식이 찾아온다. 64년 부부간에 논쟁이나 고부갈등이 있을 수 있다. 76년 집안에 환경변화를 주거나 내일을 해 보려고 주변과 상의한다. 88년 상대를 먼저 배려함이 나를 인정받게 한다.

41년 재물에 이익이 생기거나 인심 쓸 일 생긴다. 53년 타인과의 비교함은 상대와의 다툼이 되니 언행 조심. 65년 시비나 구설이 오거나 주변 일에 참견은 자제하고 중립을 지킬 것. 77년 생각이 복잡하고 결정은 어렵다. 상의하거나 교육현장에서 정보를 활용하라. 89년 명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가 되길.

42년 시댁, 처가 문제 또는 자녀로 인한 걱정이 생긴다. 54년 고집과 자존심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존중과 화합을 병행하라. 66년 우환으로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가 필요. 78년 취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 심사숙고. 90년 소화가장기에 무리가 오니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섭취하라.

43년 평소의 방식보다 새로운 방법이 이득이 될 수 있다. 55년 분실 또는 실수가 있으니 금전 또는 지갑보관을 잘 해야 한다. 67년 구매중독이 생기거나 외출할 일이 생긴다. 79년 서두르면 일이 안풀리니 신중하라. 특히 금전 대출은 불리. 91년 가족의 의사 소통에 역할을 하거나 리더십이 요구 되는 날.

44년 도움이 있으나 마음이 바쁘고, 몸이 분주하다. 결과가 있다. 56년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나 다툼이 오거나 금전거래는 보류. 68년 재물 손재수가 있다. 외출시 문단속 철저. 현금과 지갑 금지. 80년 의욕, 자신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함. 92년 청춘을 아끼지 말고 관대한 마음으로 화복을 도모하라.

45년 슬픔을 나누거나 기쁨을 축하해 줄 일이 생긴다. 57년 재물이 귀하다. 부모나 처, 시어머니의 도움이 크다. 69년 남의 일에 간섭은 나에게서 골 망신이 된다. 참견하는 일은 자제. 81년 업무나 성과에 대한 청찬을 듣는다. 93년 불만이나 원하는 것은 가슴에 묻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

46년 자리를 함께하며 음식을 나눌일이 생긴다. 58년 생각이 많고 갈 곳도 많지만 마음은 허전하다. 70년 업무나 취업에 대한 생산성있는 소식을 접한다. 재물이 귀하다. 82년 투기나 도박에서 불리하나 경마 도박에는 관심 갖지 마라. 94년 활동이 많고 자녀에 관한 일로 분주. 외부 활동에서 이익이 온다.

47년 업무과다에 따른 스트레스가 따른다. 도움을 받으라. 59년 금방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하다. 조금만 실수를 부른다. 71년 자녀문제나 처가의 사소한 일로 가정불화. 83년 부모님이나 윗분들의 충고가 있으니 삶의 지표로 삼자. 95년 상대와 인정이나 다툼은 피할 것. 자랑하는 일은 불리.